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31 2016. 10.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중 1 패널 -

정윤미 전문연구원 whandym@nypi.re.kr

개요

조 사 명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조사

조사목적 ▶ 한국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초1, 초4, 중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7개년(2010년~2016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
▶ 매년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여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학술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

조사대상 ▶ 2010년에 선정된 중1패널 표본 2,351명과 그 보호자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

I. 분석개요

● 분석자료 및 대상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2010년부터 초1, 초4, 중1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팬덤활동과 관련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한 중1패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분석도구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문항 중 팬덤활동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및 9가지 팬덤활동 빈도를 살펴보았다. 팬덤활동 빈도는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 팬덤활동은 ①팬미팅 참석, ②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③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 ④홈페이지 방문, ⑤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⑥선물보내기, ⑦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⑧책/CD/비디오테이프/DVD 구입, ⑨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 등 총 9가지 활동으로 ‘자주한다(1점)’에서 ‘전혀하지 않는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전혀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한다(4점)’으로 역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팬덤활동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 분석결과

1. 팬덤활동: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 중1패널의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를 년도별로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때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6%로 전년도 대비 14.2%p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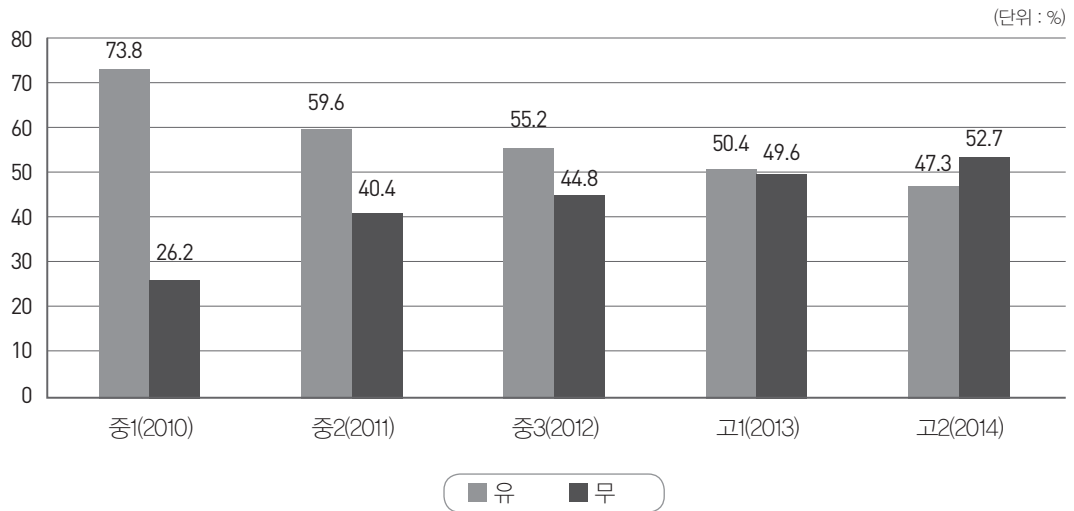


그림 1 중1 ~ 고2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추이

-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중학교 1학년 때 각각 67.6%,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까지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약 20%p 이상 차이를 보인다.

표 1 중1 ~ 고2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추이: 성별

	중1(2010)			중2(2011)			중3(2012)			고1(2013)			고2(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있음	73.8	67.6	79.9	59.6	47.1	72.3	55.2	43.9	66.8	50.4	40.1	61.1	47.7	38.1	56.9
없음	26.2	32.4	20.1	40.4	52.9	27.7	44.8	56.1	33.2	49.6	59.9	38.9	52.3	61.9	43.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호하는 연예인 유무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중1, 고2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수도권 거주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 간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의 차이는 5%p 미만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1 ~ 고2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 유무 변화 추이: 지역

	중1(2010)			중2(2011)			중3(2012)			고1(2013)			고2(2014)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있음	73.8	75.1	73.1	59.6	58.8	60.0	55.2	51.7	56.5	50.4	49.0	51.2	47.7	48.3	47.0
없음	26.2	24.9	26.9	40.4	41.2	40.0	44.8	48.3	43.5	49.6	51.0	48.8	52.3	51.7	5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팬덤활동: 빈도

-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안은미 외(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오프라인 팬덤활동 4문항(① 팬미팅 참석, ②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 ③ 선물 보내기, ④ 책이나 CD 등 구입), 온라인 팬덤활동 5문항(① 홈페이지 방문, ②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③ e-mail 또는 팬레터 쓰기, ④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⑤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 올리기)으로 구분하여 전체 팬덤활동, 오프라인 팬덤활동, 온라인 팬덤활동의 평균 빈도를 살펴보았다.
- 전반적으로 팬덤활동 빈도는 2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의 팬덤활동이 조금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팬덤활동은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각각 1.87점과 1.88점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이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는 1.71점,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1.62점, 1.60점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팬덤활동과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오프라인 팬덤활동은 중학교 1, 2학년때 각각 1.50점, 1.53점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 때는 1.46점,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1.41점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팬덤활동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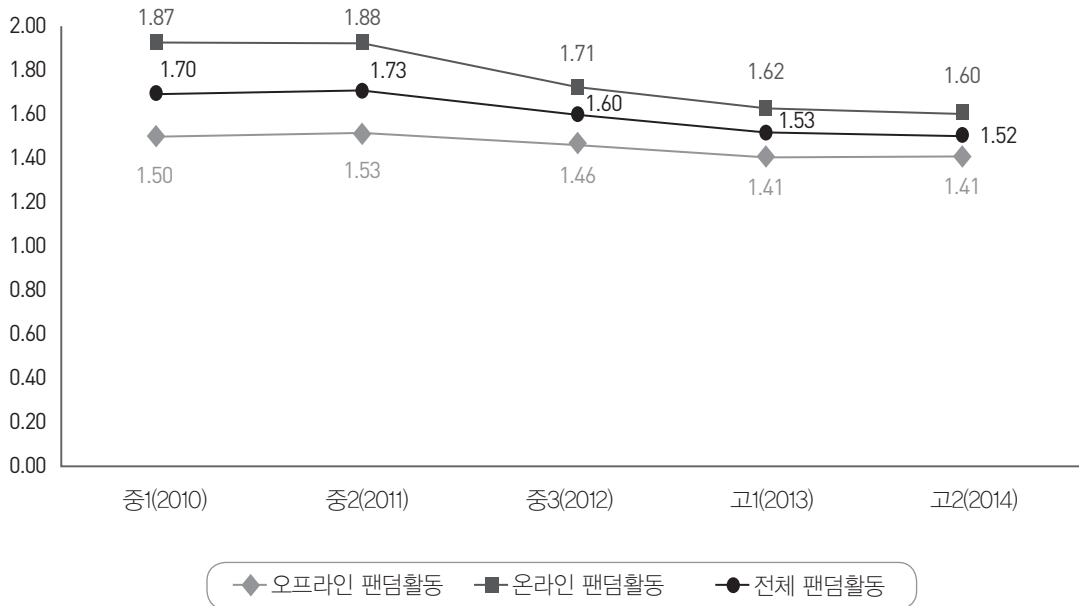


그림 2 중1 ~ 고2 팬덤활동 빈도 변화 추이

- 성별에 따른 팬덤활동 빈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팬덤활동 모두 남자보다 여자의 팬덤활동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의 오프라인 팬덤활동 빈도는 전반적으로 1.5점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는 중학교 1학년 때 1.46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29점으로 약 0.17점 감소하였다.
- 온라인 팬덤활동 역시 남자보다 여자의 활동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팬덤활동 빈도를 비교하면, 남자보다 여자의 팬덤활동 빈도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남자: 0.22점, 여자: 0.32점) 나타났다.

표 3 중1 ~ 고2 팬덤활동 변화 추이: 성별

	중1(2010)			중2(2011)			중3(2012)			고1(2013)			고2(201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오프라인 팬덤활동	1.50 (0.55)	1.46 (0.53)	1.53 (0.56)	1.53 (0.61)	1.45 (0.59)	1.59 (0.62)	1.46 (0.59)	1.32 (0.50)	1.55 (0.62)	1.41 (0.57)	1.23 (0.41)	1.53 (0.53)	1.41 (0.54)	1.29 (0.46)	1.50 (0.58)
온라인 팬덤활동	1.87 (0.76)	1.67 (0.69)	2.03 (0.78)	1.88 (0.79)	1.63 (0.67)	2.05 (0.81)	1.71 (0.74)	1.48 (0.65)	1.87 (0.76)	1.62 (0.67)	1.38 (0.52)	1.79 (0.71)	1.60 (0.65)	1.45 (0.58)	1.71 (0.67)
전체 팬덤활동	1.70 (0.61)	1.58 (0.57)	1.81 (0.63)	1.73 (0.66)	1.55 (0.59)	1.84 (0.68)	1.60 (0.63)	1.41 (0.54)	1.73 (0.65)	1.53 (0.58)	1.31 (0.43)	1.67 (0.63)	1.52 (0.56)	1.38 (0.49)	1.62 (0.59)

- 지역별 팬덤활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 빈도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한 차례씩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1 ~ 고2 팬덤활동 변화 추이: 지역별

	중1(2010)			중2(2011)			중3(2012)			고1(2013)			고2(2014)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전체	수도권	그 외 지역
오프라인 팬덤활동	1.50 (0.55)	1.55 (0.58)	1.47 (0.53)	1.53 (0.61)	1.68 (0.68)	1.46 (0.56)	1.46 (0.59)	1.61 (0.72)	1.40 (0.51)	1.41 (0.57)	1.51 (0.64)	1.37 (0.53)	1.41 (0.54)	1.46 (0.56)	1.38 (0.52)
온라인 팬덤활동	1.87 (0.76)	1.92 (0.79)	1.84 (0.74)	1.88 (0.79)	1.98 (0.84)	1.84 (0.76)	1.71 (0.74)	1.82 (0.82)	1.67 (0.70)	1.62 (0.67)	1.69 (0.72)	1.60 (0.65)	1.60 (0.65)	1.63 (0.61)	1.59 (0.66)
전체 팬덤활동	1.70 (0.61)	1.76 (0.65)	1.68 (0.60)	1.73 (0.66)	1.85 (0.71)	1.67 (0.63)	1.60 (0.63)	1.73 (0.73)	1.55 (0.58)	1.53 (0.58)	1.61 (0.64)	1.49 (0.55)	1.52 (0.56)	1.56 (0.54)	1.49 (0.56)

III. 분석요약

-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1학년때 73.8%로 가장 높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보단 여자가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팬덤활동 빈도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활동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팬덤활동 빈도가 감소하는 추이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팬덤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변화 추이는 적으며, 이는 오프라인을 통해 팬덤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자보다 여자의 오프라인, 온라인 팬덤활동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온라인, 오프라인 팬덤활동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에 따른 선호하는 연예인/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팬덤활동 빈도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안은미, 김지선, 전선율, 정익중(2013).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4(2), 149-175.